

허정무號 안정속 변화 택했다

유병수·양동현·김근환 뉴페이스 첫 승선

‘올드보이’ 최태욱 복귀… 엔트리 25명 발표

프로축구 K-리그의 특급 새내기 유병수(인천)를 비롯한 올림픽대표 출신 양동현(부산)과 김근환(요코하마 F.마리노스)이 생애 처음으로 A대표팀에 발탁됐다.

올 시즌 K-리그에서 부활을 알린 최태욱(전북)은 3년개월 만에 대표팀에 복귀했다.

허정무 대표팀 감독은 21일 오전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7일(이하 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원정경기를 시작으로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3연전에 나설 축구대표팀 소집 명단 25명을 발표했다.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박주영(AS모나코), 이근호(주빌로 이와타) 등 해외파를 포함한 대표팀 주축들이 대부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터키 리그의 신영록(부르사스포르)까지 가세한 유럽파가 7명이고, 일본 J-리그가 3명 등 해외파가 10명이나 된다. 유병수와 양동현, 김근환은 처음으로 A대표팀에 뽑혔다. 흥미로운 재학 중 K-리그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1순위로 인천 유니폼을 입은 유병수는 올해 13경기에서 6골2도움을 올리는 맹활약을 펼쳐 이미 대표팀 발탁이 점쳐졌다.

올해 울산에서 부산으로 이적한 양동현도 10경기에 서 3골2도움을 기록하며 허 감독의 눈도장을 받았다. 지난해 베이징올림픽 직후 일본 J-리그에 진출한 192cm의 장신 수비수 김근환은 중앙수비는 물론 공격수로도 활용할 수 있다.

조용형(제주)이 복귀했지만 곽태휘(전남), 강민수(제주), 황재원(포항) 등 중앙수비수 자원들이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해 허 감독은 과감히 김근환을 불렀다.

대표팀 소집 때마다 부상에 밭복을 입혀 중도에 하차 하곤 했던 수비수 이강진(부산)도 A매치 데뷔 기회를 다시 잡았다. 올 시즌 프로축구 11경기에서 5골4도움을 올리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은 최태욱은 허정무 감독 부임 이후 대표팀에 처음으로 합류했다.

A매치 28경기에서 출전해 4골을 기록한 최태욱이 마지막으로 뛴 국가대항전은 2005년 8월 동아시아선수권대회 북한전이다.

허 감독은 “최종예선의 마지막 고비에 와 있다. 마



<유병수>

<양동현>

<최태욱>

지막 경기까지 신경 써야 한다. 그동안 선수들을 계속 봤다. 여러분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좋은 경기력을 보인 선수들을 선발했다”면서 “마무리까지 잘 해서 반드시 본선 진출의 위엄을 달성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대표팀은 28일 낮 12시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모여 이틀간 훈련하고 나서 30일 오후 1시50분 인천공항을 떠나 UAE 두바이로 이동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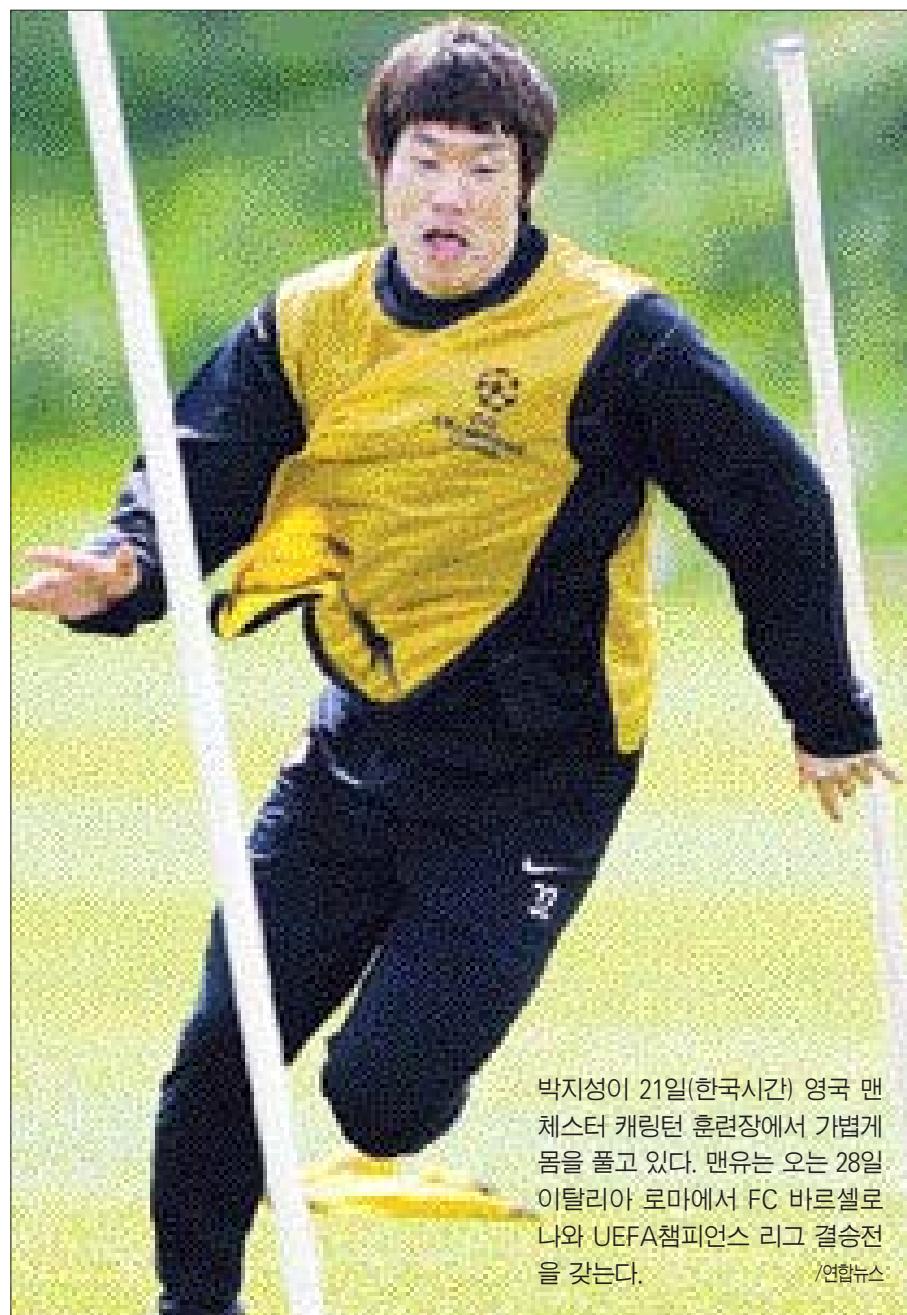
이후 다음 달 3일 오전 0시30분 두바이에서 오만과 평가전을 치르고 7일 오전 0시15분 두바이 알 매크 스타디움에서 UAE와 남아공월드컵 최종예선 6차전 원

정경기를 치른다.

◇축구대표팀 소집 명단(25명)

▲GK = 이운재(수원) 김영관(울산) 정성룡(성남)
▲DF = 조용형(제주) 이정수(교토) 김형일(포항) 김근환(요코하마 F.마리노스) 이강진 김창수(이상 부산) 김동진(제니트) 오범석(사마라) 이영표(도르트문트) ▲MF = 조원희(위건) 김정우(성남) 기성용 이청용 김치우(이상 서울)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최태욱(전북) 배기종(수원) ▲FW = 이근호(주빌로 이와타) 박주영(AS모나코) 신영록(부르사스포르) 유병수(인천) 양동현(부산)

/연합뉴스



박지성이 21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캐링턴 훈련장에서 기별게 몸을 풀고 있다. 맨유는 오는 28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FC 바르셀로나와 UEFA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갖는다.

28일 챔스 결승 앞둔 박지성 미디어데이 인터뷰

“바르샤 요주의 인물은 메시”

박지성(28·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유럽 프로축구 왕중왕을 가리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앞두고 준비 상황과 각오를 밝혔다. 결승 상대 바르셀로나(스페인) 선수 중에서는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공격수 리오넬 메시(22)를 가장 위협적인 선수로 꼽았다.

오는 28일(이하 한국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릴 바르셀로나(스페인)와 2008-2009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준비 중인 맨유는 20일 캐링턴 연습 구장에서 미디어데이 행사를 가졌다. 맨유의 대회 결승 진출 주역인 박지성이 공개 훈련에 참가하고서 각국 취재진의 질문공세를 받았다.

다음은 박지성과 일문일답.

-퍼거슨 감독이 결승 출전에 대해 언급했다.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대를 하게 하는데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나.

▲당연히 챔피언스리그 결승 경기를 준비 할 것이다. 경기에 투입될지 안 될지는 당일이 돼봐야 아는 것이다. 그때까지 연습에서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

-이번 결승에서 뛰면 아시아 선수로서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을텐데 이것이 동기 부

여가 되나.

▲아직까지는 그런 것에 대해 전혀 생각 해 보지 않았다. 지금 내가 할 일은 얼마나 컨디션을 잘 유지해서 결승에 뛸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드느냐다. 최초이거나 아니냐 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평균에도 둘지 못했던 지난 시즌 대회 결승을 되돌아 본다면.

▲경기 당일 출전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결승전에 뛰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당연히 아주 아쉬웠고 실망스러웠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위협이 될 선수를 꼽는다면.

▲리오넬 메시다.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창과 방패의 싸움이 될 것 같다. 선발 출전 한다면 어떤 경기를 펼쳐 보이고 싶은가.

▲아직 어떤 경기를 펼칠지 있다는 생각은 없다. 뭘지 안 뭘지도 모르고,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출전한다면 팀의 일원으로서 내가 할 역할을 충분히 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골 득점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없다.

최경주 빗속 이븐파

“연습 때 아무리 잘 쳐 봐야 뭐 합니까. 실제 경기 때 실수를 해야 교훈을 얻죠”

21일 개막한 한국프로골프(KPGA) SK텔레콤오픈에서 출전한 최경주(39·나이키골프)는 “샷에 대한 만족도는 60% 안된다. 하지만 좋은 하루였다”며 자신의 플레이를 평가했다.

세차게 내린 비 때문에 온몸이 젖었던 최

경주는 “실수가 나오기는 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샷을 쳤다. 실제 대회에서 이런 실수를 해봐야 다음 대회 때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다”며 전혀 개의치 않았다.

대회 때 빠이픈 실수를 해봐야 발전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최경주는 18번홀(파4)에서 두번째 샷이 그린 못 미친 왼쪽 헤저드에 빠진 것에 대해서도 답답하게 이야기

했다.

“잘못 치면 볼이 왼쪽으로 빠질 수도 있지 만 컷 샷을 꼭 해보고 싶었다”는 최경주는 “비록 미스샷이 났지만 과감하게 자신이 하고 싶은 샷을 날려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주는 14번홀(파5)에서도 티샷이 복커에 들어간 뒤 평범하게 빠져나오기보다는 볼을 높이 띠우려고 하다가 해저드에 들어

가면서 결국 1타를 놓고 흘어웃했다.

1라운드에서 버디 2개에 보기 2개로 이븐파 72타를 적어낸 최경주는 “오늘처럼 비가 많이 오는 날에 이 정도 성적을 낸 것에 만족한다”면서도 2라운드 때도 다양한 샷을 시도하겠느냐는 질문에 “오늘 실수를 했으니 내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며 웃어 보였다.

/연합뉴스



21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172 골프장 오션코스(파72·6천7250야드)에서 열린 SK텔레콤오픈 1라운드 13번홀에서 최경주가 그린 경사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